

# “존귀한 분께 귀의합니다”

## 정을 스님 4집 앨범 발표



4집 발표한 정을 스님.

“나모 땃서 비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 붓닷서(존귀한 분, 공양반아 마땅하신 분 바르게 깨달으신 그분께 귀의합니다)-

정을 스님이 4집을 발표했다. 붓다완다 나라는 ‘부처님께 예경하는 노래’라는 뜻이다. 빼알리어로 된 ‘나모 땃서 비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붓닷서’가 되풀이 되는 이 음악은 부처님에 대한 찬탄과 존경을 담은 만트라다.

스님이 이 노래를 만나게 된 사연은 독특하다. 우선 이 노래의 원제작자 신디(Shindi, 말레이시아)의 사연부터 말하자면 이렇다. 그는 어느날 시내에서 운전중 하고 있었는데 잘못된 길을 몇번이나 반복하며 같은 자리를 맴돌았다고 한다. 그때 부처님을 향해 간절한 기도를 했고 그때 어디선가 멜로디가 들려왔다고 한다. 평소 음악을 좋아했지만 작곡 능력이 없는 그에게는 매우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멜로디를 녹음해 피아니스트를 찾았다. 그리고 이를 곡으로 쓰고 음반을 만들게 되었다.

그럼 정을 스님은 어떻게 이 곡을 만나게 됐을까? 9년간 정을 스님은 스리랑카에 여행을 가게 됐다. 음성포교 17년 차에 접어들면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스님은 휴식을 취하고자 스리랑카로 가게 됐다. 그리고 한 불교 백화점에서 이 노래

를 듣는 순간 마음이 평온해졌다고 한다. 담당자를 찾아 음반 복사본을 받을 수 있었고 스리랑카를 떠나 미국에서 포교활동을 하면서도 내내 이 음이 머릿속에 맴돌았다고 한다.

스님은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평온해졌고 호흡이 내려앉으며 질로 명상에 들게 하는 음악이었다. 이 음악은 내가 노래하고 싶다는 발원을 갖게 했다. 화두처럼 머릿속에 떠나지 않게 하는 그 음율이 말이다. 그렇게 작곡자를 찾게 되었고 나는 환희심으로 이 음악을 노래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이 음악은 조계종 교육원 빨리어 강좌 동영상 배경음악으로도 쓰여질 예정이다. 스님은 “2월부터 전국 승가대에 빨리어 강좌가 의무화 되면서 제 노래가 빨리어

### 스리랑카서 노래 듣고 감동

### 예경·찬탄 빼알리어 만트라

동영상 강좌에 오픈된 음악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그래서 이번 음반을 전국 승가대에 3백개 보시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승가대 학생들이 빨리어를 좀더 자연스럽게 친숙하게 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해외공연도 갖는다. 상반기 뉴욕 원불교 교당과 LA관음사 등에서 공연을 갖고 상반기 안에 두 개의 빨리어 음반을 더 낼 계획이다.

스님은 “5집은 ‘삼보에 귀의하는 노래’가 될 것이고 6집은 ‘부처님께 약속하는 노래’가 될 것입니다. 이들은 동남아에 있는 많은 불자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열불로 많은 이들에게 신심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bwjsh@hyunbul.com

## 한국미술의 들린 용어 바로잡기 꽃병→만병

# 용·연꽃은 영화시킨 ‘물’ 상징

靈化

### 용 얼굴 화반 채색분석

지난번에 여러분은 처음으로 꽃병으로 알던 것이 꽃병이 아닐까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만병이란 용어도 처음으로 들었을 것이다. 그러면 왜 만병에서 갖가지 용이 솟아나왔을까? 그것을 이해하려면 용의 얼굴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풍남문에는 만병 화반과 용 화반이 번갈아 가며 배치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배치했을까. 개방적인 사찰의 누각이나 성(城)의 문루에는 반드시 그 원칙을 지키고 있다. 조형미술에서는 가능한 한 같은 조형을 반복하지 않는데 조형은 달라도 상징은 같아야 한다. 풍남문의 용 얼굴 화반을 채색분석해 보면 용의 입가에서 용기문이 뻗어나가는 광경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용의 입에서 ‘무엇이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우선, 용의 본질을 모르고 용의 입에서 여러 가지 ‘무엇’이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이다.

100년 동안 귀신의 정면 얼굴을 귀면(鬼面)이나 도깨비로 불러 왔으므로 그 입의 양쪽으로 발산하여 나오는 무엇을 전혀 보이지도 않았고 상징은 더 더욱 알 수 없었다. 귀면은 틀린 용어이지만 이미 우리 국민 대다수가 용의 얼굴입을 알고 있으니 따로 항목을 두어 설명하지 않았다. 그렇게 잘못 알고 왔으니 입에서 나오는 것은 명칭이 있을 리 없어서 내가 부여하지 않을 수 없다. 동양 최고의 신(神)을 귀신이나 도깨비라고 불렀으니 그 불경죄는 크고도 크다. 그것은 마치 여래를 귀신이나 도깨비로 부르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래가 바로 용이란 진실도 앞으로 자연히 풀려질 것인데, 용이나 여래를 귀신이나 도깨비로 부르면 화랑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 뻔하다.

일반적으로 용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면 귀신의 얼굴이라 하고, 용의 모습을 옆으로 길게 표현하면 용이라 인식한다. 그런데 용의 정면 얼굴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용을 정면으로 보기 때문에 몸이 보이지 않을 뿐이다. 그러므로 용의 얼굴을 정면으로만 표현한 것은 단축법(短縮法\*, foreshortening)으로 용을 나타낸 것이다. 이 진실은 이 글을 쓰면서 나 자신도 처음 인식한 것이니 기쁘기 그지없다. 용의 얼굴만이 있을 수 없다. 몸이 없는 얼굴이 있을 수 있는가. 몸이 없이 인간의 얼굴을 정면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옛 예술가는 그 오해를 풀기 위해 간혹 용의 정면 얼굴 양쪽 바로 옆에 다리를 두는 경우가 있다. 풍남문인 경우에는 만병에서

나오는 용기문과 용의 입에서 나오는 것과 비슷하다. 다만 만병인 경우에는 갖가지 용기문을 잔뜩 솟아나올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으나, 용의 얼굴인 경우 양쪽 공간이 좁아 간단히 용기문을 표현하였는데 만병의 용기문의 모티브와 같은 것을 선택하여 나타내었다. 그런데 바로 용의 입에서 나오는 용기문과 만병에서 나오는 용기문에서 만물이 탄생하므로 용기화생(靈氣化生)이라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전주성 풍남문의 용 얼굴 화반을 채색분석해 보면, 지난 회에 소개한 만병에서 솟아오르는 용기문과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그림①, 그림②) 이 화반들은 왜 만병이나 용의 얼굴(龍面)을 조각하여 배치하였을까? 외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세계에서 인류역사상 조형언어를 처음으로 해독한 사람은 바로 필자이다. 그러므로 이 연재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조형의 구성원리와 상징구조를 처음으로 밝히는 것이다. 내가 한국인으로서 한국 뿐 아니라 세계에서 인류역사상 조형언어를 처음으로 해독한 사람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고구려 무덤벽화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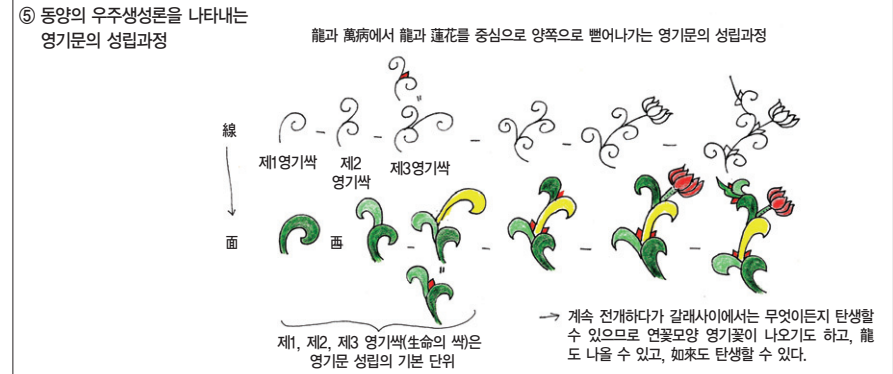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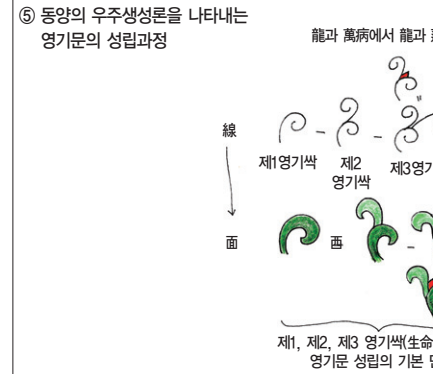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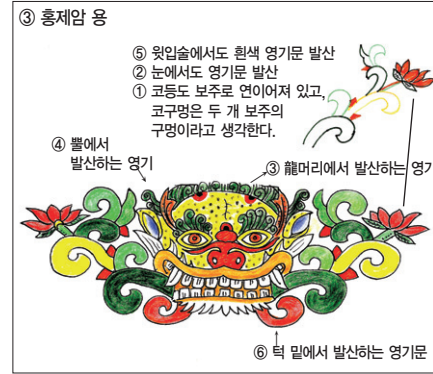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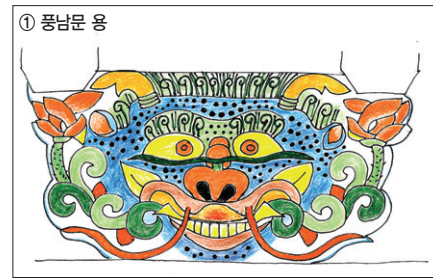
### 만병 안에는 물이 가득

### 물을 정수=영수=성수화

고려-조선의 불화에서 해독하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세계문화를 선도하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으므로 문화적 사대사상(事大思想)에서 비로소 헤아릴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런데 아직도 믿기 어렵다면 아주 쉬운 예를 들기로 한다. 해인사 홍제암(弘濟庵)에 가보면 표충사(表忠祠)중층(重層) 누각의 건축양식이 특이하다. 사명대사가 열반에 든 곳이라 사찰의 건축양식이 다른데서 보기 어렵다. 홍제암 건축의 화반을 보면 용의 입에서 양쪽으로 나오는 용기문이나, 만병의 중심에서 위로 뻗어 올라간 연꽃의 양쪽으로 뻗어 나간 용기문은 똑같다.(그림③, 그림④) 그러나 용과 연꽃은 같은 것이 되고, 전체적으로 용과 만병은 똑같은 것이 되어 만물의 근원이 된다. 이론적으로 정확하지 않은가. 더 이상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용기문이란 조형언어를 문자언어만으로 설명할 수 없으므로 채색분석하면서 구성원리와 상징구조를 그림 옆에 기록하여 두도록 한다. 그래야 여러분도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조형언어는 조형언어 이외의 방법으로는 풀 수 없다.

보이지 않는 신령스러운 기운, 즉 영기



를 옛 예술가들은 갖가지로 조형적으로 표현하였는데, 혹은 추상적으로 혹은 구상적으로 표현하였으나, 현실에 존재하는 형태는 하나도 없다. 혹 현실에서 보는 형태를 그대로 표현했다고 해도 항상 영화(靈化)시켜 용기문으로 창조했다. 그러면 무수히 많은 용기문의 변주 가운데, 해인사 홍제암의 화반들을 채색분석하여 보면 모든 것이 분명해진다. 용기문은 반드시 조형의 구성원리가 조형언어법문에 따라 일관성을 띠며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상징구조를 밝혀낼 수 있다. 제1용기문이란, 용기문을 이루는 최소 단위로 생명생성의 가장 근원적인 썩어지만 현실의 썩어지 않고 용기문으로 승화된 생명의 썩이다. 제1용기문에서 제2용기문이 성립하고 다시 제3용기문이 성립하여 만물이 생성하는데, 이 모두를 용기문의 최소 단위로 묶어 조형소(造形素)(문자언어의 형태소에 대비하여 필자가 만든 용어)라 부르기로 한다.(그림⑤)

홍제암 표충사 누각에도 풍남문에서와 마찬가지로 화반은 용과 만병이 교대로 배치되어 있는데 홍제암 용과 너무 같아 놀란다. 용의 입에서 발산하는 용기문

과 연꽃모양 용기꽃에서 발산하는 용기문은 똑같으므로, 용과 연꽃모양 용기꽃은 두 가지는 같다고 쉽게 증명할 수 있다. 그러면 왜 같을까? 용과 영화된 연꽃은 모두 물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물을 형상화한 것이 용이라는 조형이요, 물을 상징하는 것이 영화된 용기꽃이므로 두 가지에서 발산하는 용기문이 같은 것이다. 더구나 만병 안에는 물이 가득 차 있다. 물도 영화시켜 정수(淨水)=영수(靈水)=성수(聖水)로 만들어야 한다. 현실에서 보는 모든 사물은 용기문으로 영화시켜야 만물이 탄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축법 (foreshortening, 短縮法)이란 회화나 부조에서 특정한 물체나 인물의 공간적 깊이를 표현하는 기법이다. 예를 들어 누워 있는 인물을 받치에서 찍은 사진에서는 렌즈에 가장 가까운 발부 분이 비정상적으로 커 보이고 멀리 있는 머리 부위는 비정상적으로 작아 보인다.

강우방 (일할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 시전문지 <유심> 1월부터 월간 발행

### 문학토크 등 읽을거리 풍성

격월간으로 발행되던 시전문지 유심이 2013년 새해를 맞아 월간지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번 호에서는 유심문학토크, 기획특집 나에게 시란 무엇인가, 시와 예술의 만남, 시집 속의 시 등 다양한 코너를 만날 수 있다.



로운 의미를 갖게 되고 저로 인해서 세계는 그 관계가 재정의 되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한다.

시와 예술의 만남에는 음악을 주제로 얘기한다. 신상호 전북대 음대 교수는 ‘시 는 노래의 영혼’이라는 주제로 고대 그리스의 시와 음악, 성가 음악가 할데가르트, 음유 시인들 등을 통해 시와 음악의 연관성을 찾아간다.

이밖에도 유심문학토크에는 권혁웅 시인이 참여했으며 권두논단에는 박현수 시인이 ‘왜소한 시를 넘어서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글을 실었다.

정혜숙 기자

기획특집 ‘나에게 시란 무엇인가’는 시인 8명에게 듣는 시론이다. 시인은 왜 시를 쓰고 언제 시를 쓰며, 그렇게 쓴 시들 중 가장 아끼는 작품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답을 글로 풀어낸다. 여기에는 김종길, 김후란, 문덕수, 박희진, 성찬경, 오세영, 유안진, 이근배 시인이 참여했다. 오세영 시인은 “시를 쓸 때만큼은 우주의 중심입니다. 저에 의해서 이 세계는 새

#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II

- 광명 만덕·자재 만현 -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12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연속 7주 베스트셀러 1위

불과 이론 대성자의 경천동지할 대사자후!!  
우주 탄생과 영혼체의 비밀에 대한 초유의 선언!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와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나는 누구이며 무엇인가? 인간의 탄생 - 우주 삼라만상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등 만고의 비밀을 파헤친

이 시대 최고의 철학·종교서!

붓다의 가르침에 따른 세계종교 비교

김수·자재 만현 큰스님 글·법장 김중섭 720쪽 | 값 25,000원

달라이 라마 Dalai-Lama XIV의 우주기원 5대 의문에 대한 대답을 제시한 아사대 인류가 읽어야 할 양서!

\* 전국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춘천본사 T. (033)243-1795, 243-1787 불서출판 운주사 T. (02)3672-7181 \*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